

저자 웬디 전(Wendy Hui Kyong Chun)
 출처 『NJP 리더 #10 미술관 없는 사회, 어디에나 있는 미술관』
 발행처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잡동사니의 천사: 백남준과 함께하는*

출판정보

기획·편집	김윤서
공동편집	윤자형
번역	윤자형
디자인	김규호
발행일	2021. 04. 19.

웬디 전은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의 캐나다 150주년 기념 연구 프로그램 뉴미디어 분야의 연구
위원장이다. 2019년에 출판하여 평등과 사회 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문학과 데이터 과학 통합을
목표로 활동하는 디지털 데모크라시 그룹을 이끌고 있다. 디지털 데모크라시 그룹은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용자 실천과 대안적인 연결을 위한 패러다임을 육성하여 온라인 '메아리방(echo chamber)
효과와 욕설, 편향된 알고리즘, 잘못된 정보 등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단체다.

오늘의 이 특별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보자. 팬데믹 이후의
미술관이 어떻게 보이는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이전부터 있었던 비물질적
전시로의 변화는 미술관의 '최후'를 어떻게 바꿔놓았는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술관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공간이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양한
계층이 차별이나 배제를 당하지 않고 비물질화된 미술관에 접근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가 2020년에도 여전히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터넷이 처음에
우리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다. 20세기 후반 '사이버스페이스'는 온갖
정치적인 문제와 불평등의 해결책으로 여겨졌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앙드레 말로의
벽 없는 미술관이자 아테네의 아고라 2.0 버전이었으며, 마찰 없는 자본주의의 징후,
'차별 철폐' 구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의 나쁜 일이 전부 인터넷 때문이라고
비난받는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음모론을 부채질하며,
사용자들을 과격하게 만들고, 팬데믹을 연장하고, 지구를 파괴하는 소비를 조장하는
군사 작전 수준의 심리전에 의해, 그리고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된다고 말이다.

우리는 백남준의 유산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전자 고속도로의 '아버지'라 불리는
백남준의 비전을 실패한 선전으로 일축하고 싶은 유혹이 든다. 백남준이 선언한,
세계 평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로운 교환—"모든 국가에서 온 온갖 종류의
음악과 춤"이 한데 모이는 "비디오 공동 시장"과 "주간 텔레비전 페스티벌"—이라는
생각은 보기 괴로울 정도로 순진하다.¹ "에너지와 생태를 획기적으로 절약"하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비전, 그리고 미디어가 미국 인종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시각도 마찬가지로 철없어 보인다.² 백남준이 언젠가 "재즈는 흑인과 백인을 한데
묶는 최초의 끈"이라는 돈 루스의 주장에 수긍했던 일은 노예제와 남북전쟁 이후
재건 시대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또한 백인 동네의 탁아소와 흑인 동네의
탁아소를 쌍방향 비디오로 연결하겠다는 생각은 흑/백 분리주의를 묵인하는 버스
통학제도에 눈감는 일이었다.³ 게다가 인도의 인구 제한을 은근히 주장하던 TV에
대해 백남준이 취한 입장은 마치 대중 세뇌와 사회 공학적 사고를 장려하는 것 같다.⁴
더 나아가, 백남준의 귀여운 로보과 '기술을 인간화하기' 위한 시도는 오늘날의
무시무시하고 차별적인 인공지능 앞에서 거의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백남준 자신도 '전자 초고속도로'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그의 유산은
단순한 말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케이블로 연결된" 탁아소를
두고 백남준은 "이것은 현실 도피인가, 위선인가? 혹은 인종 문제를 장기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인가?"라고 물으며, "어쨌든 기술은 통학 버스 요금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활용해줄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⁵ 더 나아가 백남준은
록펠러 재단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초고속통신망에서의 대중 감시 체제를 경고했다.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순수 상업
자본과 정부 기관, 또는 컴퓨터 분석가에게만 맡겨 두고 못 본 체한다면, 하드웨어는
모두 다시 한번 미스터리한 권력 복합체에 의해 독점될 것이고 그 결과는 '수퍼-

* 본 연구는 캐나다 150주년 기념 연구 프로그램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

Nam June Paik, "Global Groove and the Video Common Market (1970)," *We Are in Open Circuits: Writings by Nam June Paik*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2019), 143.

2

Nam June Paik, "Media Planning For The Post Industrial Age (1974)," *We Are in Open Circuits*, 163.

3

Nam June Paik, "Global Groove and the Video Common Market (1970)," *We Are in Open Circuits*, 143.

4

Nam June Paik, "Media Planning For The Post Industrial Age (1974)," *We Are in Open Circuits*, 155.

5

Nam June Paik, "Media Planning For The Post Industrial Age (1974)," *We Are in Open Circuits*, 158.

워터게이트'가 될지 모른다.”⁶ 더 나아가, 백남준의 〈로봇 K-456〉에서 포인트는 웃음이었다. 〈로봇 K-456〉은 “21세기 기술 재앙에 대처하는” 재미난 구경거리로서 거리 퍼포먼스와 이벤트에 등장했다.⁷

“침착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시간 따위는 없는 듯한” 이 위기의 순간에 백남준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전 지구적 원거리 통신에 관한 비전이라든지, 사이버네틱스적 아이디어 너머의 백남준을 볼 필요가 있다. 1993년에 상을 받은 베니스비엔날레 독일관 내 백남준의 《전자 초고속도로: 베니스에서 울란바토르까지》 전시에는 거대한 “전자 초고속도로” 멀티스크린뿐만 아니라 로봇 조각상, 각종 부품으로 가득 찬 “잡동사니 방”, 그리고 오래된 TV 수상기들도 있었다.

오래된 텔레비전 수상기와 같은, 잡동사니를 이용한 백남준의 작업은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생각할 기회를 준다. 미디어의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본성에서 출발하자는 김윤서 큐레이터의 기획 방향을 따라, 이 글에서는 백남준의 예술이 ‘다가오는 특이점’과 우리 앞에 놓인 인공지능의 재앙을 어떻게 사유하는지를 살펴본다.

겨울이 오고 있다

백남준아트센터 김성은 관장이 말했듯이,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새로운 것일지 몰라도 거기서 파생된 문제들은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증강된’ 미래를 계획했던 바로 그 순간 미술관은 기술의 지배와 통제, 바이러스처럼 퍼져 나가는 혐오와 차별, 정보 접근의 불평등이라는,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지만 아직은 정체가 불분명한 문제들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미술관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처럼 지금까지는 대중 넘겨온 일들이 2020년 팬데믹과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훌쩍 뛰어넘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미래를 위해, 미래 그 자체에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가 2020년 위기에 대항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면’ 다음번에는 늦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가 마주할 다음 재앙은 볼 것도 없이 인공지능이다. ‘전자 초고속도로’처럼 인공지능은 인종주의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여겨졌다. 기계는 인종이나 성, 나이, 질병 따위를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별을 없애줄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⁸ 더 나아가 인공지능은 1퍼센트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운전사, 개인 비서, 전문가 자문 같은 특별한 서비스를 95퍼센트의 대중에게 확산시킴으로써 인류의 불평등을 종식했다고들 한다. 그러나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인공지능에도 애초 기대한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 비-백인의 얼굴을 잘못 식별하는 얼굴 인식 시스템부터 여성의 이력서를 떨어뜨리는 고용 프로그램,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가족에게 벌점을 적용하는 리스크 평가 프로그램,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를 타깃으로 하는 범죄 예측 치안 프로그램까지, 현재의 머신러닝 프로그램들은 차별을 영구화하고 있다.

많은 과학자와 기술 전문가, SF 작가들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곧 세상의 종말(apocalypse)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노동을 끝장내며, 인간의 자유를 끝장내고, 자기 자신을 끝장내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끝장낸다는 것이다. 이 공포는 꽤나 강력해서 21세기 초 실리콘밸리의 프로그래머들은 고용주가 ‘나쁜 인공지능’

6 Nam June Paik, "Media Planning For The Post Industrial Age (1974)," *We Are in Open Circuits*, 159.

7 John G. Hanhardt, "Nam June Paik: From Avant-Garde to Post-Video Art," *Nam June Paik: Global Visionary* (Washington, DC and London: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in association with D Giles Limited, 2012), 36.

8 Max Ehrenfreund, "The Machines That Could Rid Courtrooms of Racism," *The Washington Post*, August 18, 2016,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nk/wp/2016/08/18/why-a-computer-program-that-judges-rely-on-around-the-country-was-accused-of-racism/>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저지했다. 예컨대 구글과 미국 국방부가 공동으로 군사용 드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메이븐 프로젝트〉 같은 것들 말이다.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가들은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출 것을’ 요구했다.⁹ 다가오는 대재앙의 공포는 매우 강력해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은 2018년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연차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포함하거나 활용하는 등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는 도덕적, 기술적, 법적 문제를 새롭게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구글의 브랜드 이미지와 운영 실적을 위협했다.¹⁰ 이러한 시스템이 정확히 “대량 살상 수확 무기”(케이시 오닐), “억압하는 알고리즘”(사피야 노블), “뉴 짐 코드”(루하 벤저민)라고 불렸던 것을 감안할 때, 기업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인공지능에 투자할 수 있거나 할까?¹¹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꿈과 악몽은 뒤엎혀 있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인공지능의 복수’ 시나리오가 전제로 삼는 것은 ‘착한’ 기술이란 말 잘 듣는 노예라는 것이다. 이는 사실 ‘다가오는 특이점’이 너무나 공포스러운 나머지 기술을 마치 노예처럼 다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기술을 두렵고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몇 세기 전에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지적했듯이, 더욱 강하게 지배할수록 더욱 확실히 의존하게 된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주인의 정체성과 삶은 바로 노예의 행동에 달려 있다. 일상 생활과 커뮤니케이션을 기술에 의존해 살았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죽기 몇 해 전에, 자신의 다음 말을 정확히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칭송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인공지능은 인간 종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개발하자, 인공지능은 스스로 이륙하여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스스로를 재설계했다. 진화에 있어 생물학적 한계를 가진 인간은 인공지능과 경쟁할 수 없으며, 결국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¹² 호킹의 이러한 주장은 진보와 경쟁, 즉 다원주의적 아이디어와 자본주의적 투쟁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고하는 이들은 과학적 혹은 자본주의적인 진보와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가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제동을 걸려면 우리는 이 시스템이 길들이고 자연화하는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이 시스템이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 과거를 예측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 고도로 선별되고 ‘정제된’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짜여 있다. 그 프로그램들은 훈련용 데이터세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과거 데이터를 ‘예측하는’ 능력에 기반한 정확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과거의 데이터가 인종 차별주의자의 데이터라면 프로그램 역시 인종 차별주의적인 예측을 한다는 뜻이며, 또한 인종 차별주의적인 예측을 하는 경우에만 진실인 것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결국 무가치한 데이터를 넣으면 무가치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진실이다. 제도의 붕괴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 미래의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고 한 번에 하나의 해결책만을 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저질러온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거나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하고 자동화한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기존 제도의 붕괴를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처럼 차별을 일삼아온 과거는 머신러닝을 가능케 해주는 바로 그 방법론, 20세기의 우생학자가 개발한 방법론 전체에 교묘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선형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 차별적 데이터 분석, 상관관계 분석에 말이다. 간단히 말해 이러한 방법론들은 변하지 않는 ‘자연적인’ 특성을 발견해내 과거와 미래를 선형적인 상관관계로 묶으려 한다.¹³ 그 방법론들은 발터 베나민이 ‘텅 빈 균일한 시간’이라고

9

Kate Conger, “Google Plans Not to Renew Its Contract for Project Maven, a Controversial Pentagon Drone AI Imaging Program,” *Gizmodo*, January 18, 2016, <https://gizmodo.com/google-plans-not-to-renew-its-contract-for-project-mave-1826488620>; Camila Domonoske, “Elon Musk Warns Governors: Artificial Intelligence Poses ‘Existential Risk,’” *NPR*, July 17, 2017, <https://www.npr.org/sections/thetwo-way/2017/07/17/537686649/elon-musk-warns-governors-artificial-intelligence-poses-existential-risk>

10

Alphabet, “U.S.S.E.C. Form 10-K” (Washington D.C., 2018),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652044/000165204419000004/goog10-kq42018.htm>.

11

Ruha Benjamin, *Race after Technology: Abolitionist Tools for the New Jim Code* (Medford, MA: Polity, 2019); Safiya Noble, *Algorithms of Oppression: How Search Engines Reinforce Racism* (New York, NY: NYU Press, 2018); Cathy O’Neil, *Weapons of Math Destruction: How Big Data Increases Inequality and Threatens Democracy*, Reprint edition (New York: Broadway Books, 2017).

12

Rory Cellan-Jones, “Stephen Hawking Warns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End Mankind,” *BBC World News*, December 2, 2014, sec. Technology, <https://www.bbc.com/news/technology-30290540>.

13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 Wendy Hui Kyong Chun, *Discriminating Data* (forthcoming MIT Press, Cambridge MA, 2021).

불렀던 것을 구현한다. 이 선형적인 진보의 개념에 기반해 우생학은 ‘인간이라는 작물’의 세심한 경작을 통한 ‘거의 모든 사회 문제의 최종 해결책’을 약속했다. “혈통 선택은 한 인종이 계속해서 발전해갈 수 있는, 과학이 아는 한 유일하게 효과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¹⁴ 우생학자들은 자신들의 인종 차별주의적인 관념을 반복 재생할 미래를 디자인하기 위해 과거를 재구성했다. 그들이 만든 시스템에서 학습 또는 양육을 통해 일생 동안 획득한 차이는 그저 ‘노이즈’일 뿐이다. 이 시스템은 실제로 학습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칼 피어슨이 말했듯이, “어떤 훈련이나 교육도 지능을 창조할 수는 없다. 지능은 선천적인 것이다.”¹⁵ 머신러닝의 핵심에는 후천적인 학습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상관관계에 기반한 예측은 제도의 붕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야말로 그러한 예측들이 매우 파괴적인 이유일지 모른다.

이것이 정말이라면, 이 특별한 쟁점과 미술관이라는 맥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비디오 시대에 관한 백남준의 사색, 잡동사니를 이용한 작업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잡동사니 같은 기억들

베냐민처럼 백남준도 균일한 시간의 효력에 질문을 던졌다. 베냐민처럼, 그러나 베냐민과는 다른 방식으로 백남준은 이미지와 잡동사니를 지배적인 기술 진보의 서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았다.

영상에 대한 백남준의 접근은, 영상이 진정 혁명적이기 위해서는 편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동시대인들의 생각과 충돌했다.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편집을 거부하는 비디오 아티스트들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백남준은 입력 시간과 출력 시간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편집은 그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편집의 핵심은 인간의 시간 경험이 가지는 복잡성을 포착하는 데 있다.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거나 꿈을 꿀 때 우리는 인생 전체를 순순간으로 압축된 회상 장면처럼 경험할 수 있다(항공기 추락이나 스키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종종 이러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또는 프루스트의 소설에서처럼, 일생 내내 바깥과 완전히 차단된 고립된 방 안에 머물며 어린 시절의 짧은 경험을 곰곰이 생각할 수도 있다. 이는 특정한 입력 시간이 얼마든지 확장되거나 압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⁶ 잘 편집된 영상은 인간의 뇌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본주의 이전의 순간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백남준은 도발적으로 사교했다. “TV로 작업을 하면 할수록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TV와 신석기 시대에는 한 가지 커다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시간에 기반하여 기록하는 시청각적 기억 구조 말이다... 하나는 노래/춤으로 기억하고 다른 하나는 비디오 레코딩으로 기억한다... 나는 사유재산 시스템이 발명되기 전의 오래된 과거를 즐겨 생각한다... 그렇다. 우리의 비디오 아트는 공유하기는 쉽지만 독점하기는 어려운 공동의 공산주의적 재산이다.”¹⁷ 이러한 속고는 “더 이상 역사(history)는 없고 오직 이미지(imagery)와 영상(videory)만이 있다”는 백남준의 선언에 맥락을 제공한다.¹⁸ 이미지는 죽지 않는 존재로서의 과거를 현재에 끼워넣는다.¹⁹ 존 헨하르트가 말했듯이, “백남준의 작업은 시간을 현재의 시간으로서 구현한다.”²⁰

그러나 백남준의 비디오 콘텐츠와 비디오 설치물 사이에는 흥미로운 역사적 긴장이 존재한다. 백남준의 비디오 작업 콘텐츠는 살아있는, 더 정확히 말해 죽지 않는

14

Karl Pearson, *Nature and Nurture, the Problem of the Future* (London, 1910), 29; Pearson, *The Groundwork of Eugenics*, 20.

15

Karl Pearson, “The Huxley Memorial Lecture,” *Science* 18, no. 463 (1903): 636.

16

Nam June Paik, “Input-time and Output-time (1976),” *We Are in Open Circuits*, 148.

17

Nam June Paik, “DNA Is Not Racism (1988),” *We Are in Open Circuits*, 268.

18

Nam June Paik, “Input-time and Output-time (1976),” *We Are in Open Circuits*, 148.

19

백남준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디오테이프에 한 번 담기면 죽을 수 없게 된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했다.

Nam June Paik, “Input-time and Output-time (1976),” *We Are in Open Circuits*, 148.

20

John G. Hanhardt, “Nam June Paik,” 84.

현재를 아우르는 것이다. 반면 오래된 TV 수상기로 만든 로봇 가족 동상은 퍼트리샤 멜런캠프가 말했듯이 TV를 역사적인 것으로 만든다.²¹ 이상주의적인 비디오 아티스트가 “유적지로서 미술관을 파괴”²² 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이 TV 수상기의 물질성이 미술관을 유지해주었다. 백남준에게 비디오는 타고나기를 물질적이고 리비도적인 존재다.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은 호모 사피엔스의 새로운 물질 대사다.”²³

커뮤니케이션이 새로운 신진 대사라면, 이는 또한 거대한 작동사니도 만들어낸다. 백남준은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작동사니들을 그의 작업 과정과 아카이브에 숨겨 숨겨 숨겨 합쳤다. 이는 백남준이 생태학에 열중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백남준의 조카인 켄 하쿠타가 적었듯이, 백남준은 초기 작업에서 자주 조카의 부서진 장난감을 가져가서 사용했다. 백남준은 ‘최선의’ 기술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다. 즉, 기술 진보주의에는 관심이 없었다. 백남준은 <로봇 K-456>보다 더 잘 작동하는 로봇을 만들라는 형에게 답하기를, 자신은 “로봇이 너무 잘 작동하길 원치 않으며, 단지 그럭저럭 작동하면 된다”고 말했다.²⁴ 1993년 비엔날레에는 다시 한번 백남준의 ‘작동사니 방’과 망가진 TV 수상기 디스플레이가 전시되었다. 헨하르트가 썼듯이 ‘기억/이미지 저장고’ 역할을 하는 백남준의 아카이브는 기억과 역사를 상기시키는 사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아카이브는 ‘프로젝트의 유령들’과 ‘텍스트 조각들’에 사로잡혀 있었다.

백남준의 마지막 작품인 <차이니스 메모리>는 현재와 과거, 미래의 통합을 구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 전통 수납장 표면에는 그의 서명과 더불어 한자와 한글로 낙서가 되어 있으며, 수납장 속에는 백남준의 초기 비디오 작품인 <글로벌 그루브> 재생에 쓰였던 TV 수상기와 비슷한 수상기가 들어 있다. 그 옆에는 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에디트 데커-필립스가 설명한 바와 같이 백남준은 그의 중국 이야기 모음집인 『지혜로운 중국인』이 출판되기를 간절히 바랐다.²⁵ 여기서 백남준은 이야기를 번역한 고대 문서에 <글로벌 그루브>를 집어넣는다. 대중음악과 전통음악, TV 광고, 아방가르드 공연 등의 몽타주와 함께 말이다. 이 작업은 백남준이 언젠가 “네거티브 공상과학”이라 불렀던 것을 떠올리게 해준다. 네거티브 공상과학이란 “먼 미래를 다루는 공상과학으로서, 먼 과거와 맞물리며 ... 입증된 지식, 깊이 생각해서 얻은 지혜, 순수하게 환상적인 것들을 엮는 기법이자 ... 책임질 필요 없이 펼쳐놓은 독창성의 풍부한 혼합물이다.”²⁶

네거티브 공상과학에 관한 이러한 서술이 더욱 명확해지게끔, 백남준은 베냐민의 저 유명한 『역사 철학을 위한 테제』와 『아케이드 프로젝트』를 상기시키는 물질주의적 동시대성을 제안했다. 백남준은 베냐민이 “특정한 중대 사건을 역사의 균일한 과정 바깥으로 폭파하는” 열쇠라고 보았던 몽타주 기법을 끌어들이었으며, 모든 것을 한순간으로 압축한 이미지로 과거를 포착하려 했다. 보들레르에게서 영감을 받았던 베냐민은 역사의 잔해를 찬양하기도 했다. 그리고 백남준 역시 닝마주이처럼 “산업의 마술로 개조했을 때 유용성과 기쁨을 주는 오브제로 바뀔 작동사니를 수집한다.”²⁷ 9번 테제에서 베냐민은 파울 클레의 <앙겔루스 노부스>를 통해 역사의 천사에 관한 유명한 서술을 했다. 역사의 천사는 과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데, 그는 연속적인 사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잔해를 계속해서 쌓아 그의 발 앞에 던지는 유일한 재앙”을 목격하고 있다. “천사는 머무르며, 죽은 자들을 깨우고, 산산이 부서진 것들을 복구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낙원에서는 폭풍이 불어와 그의 날개에 부딪치고, 바람이 너무 강해서 천사는 날개를 접을 수가 없다. [...] 이 폭풍을 우리는 진보라고 부른다.”

21 Patricia Mellencamp, “The Old and the New: Nam June Paik,” *Art Journal* 44, <https://doi.org/10.2307/777693>.

22 Nam June Paik and David Ross, “A Conversation with Nam June Paik,” *Nam June Paik: Video Time, Video Space* (New York: HNAbrams, 1993), 58.

23 Nam June Paik, “How to Make Oil Obsolete,” *We Are in Open Circuits*, 252.

24 Ken Hakuta, “My Uncle Nam June Paik,” *Nam June Paik: Global Visionary*, 19.

25 Edith Decker-Phillips, “Nam June Paik’s Chinese Memories,” *We Are in Open Circuits*, 2.

26 Nam June Paik, “DNA Is Not Racism (1988),” *We Are in Open Circuits*, 267-268.

27 Walter Benjamin, *The Arcades Project*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349.

분명, 백남준과 베냐민 간에는 정치적, 철학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백남준이 유행을 정보 대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몽타주 기법을 신나게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면 아마도 베냐민은 탐탁지 않아 했을 것이다. 백남준도 틀림없이 베냐민의 불경한 마르크스주의를 못마땅해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백남준과 베냐민을 화해시킨다. 잡동사니를 통해 꿰뚫어보려는 노력, 그들이 우리에게 제시했을지도 모르는 구원의 역사를 발판으로 삼아 사고하기 위해서다.

머신러닝의 시대, 균일하고 공허한 진보의 시간에 혹독하게 맞서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머신러닝의 가능성을 파괴하기 보다는 잘 받아들이기 위한 다른 유행과 다른 감각, 다른 시간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질문을 던지고 켈리 뚝슨이 ‘데이터 신체화(data visceralization)’라 부른 새로운 유행을 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예술작품이 필요하다. 우리는 역사의 염주 구슬을 끊고, 지금 우리 앞을 휩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에서 과거를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는 백남준과 함께, 그의 잡동사니 방에 앉아서 이러한 길을 나아갈 수 있다.